

츠빙글리와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 연구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에 대한 영향사적 고찰

조용석(영남신학대학교)

I. 글을 시작하며

칼빈의 예정론은 루터의 칭의론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총과 신앙을 통한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볼 때, 루터와 동일하게 구원론적 전망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중세 시기 스콜라 신학을 지배했던 존재론적 사유로부터 종교개혁신학의 구원론적 사유로의 전환은 루터의 칭의론과 칼빈의 예정론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루터의 칭의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이라는 모토 아래 일종의 실존적인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반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근거한 그의 구원사역을 독특한 논리적 체계 및 엄밀한 논리성을 통하여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율법의 실천으로서의 선행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칭의와 예정의 논리에 입각하여 새롭게 선행의 의미를 규정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화(선행)는 칭의

의 결과로서 이해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칭의와 분리되면서도 밀접하게 결합된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 중의 하나로서 간주된다. 물론 예정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견해가 피력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¹⁾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실천적 삼단논법의 단초는 발견되지만, 정형화된 삼단논법의 형식으로 그의 견해는 표현되지 않는다. 반면에 츠빙글리 및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루터가 이해하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예정의 논리에 입각하여 엄밀하게 재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경우, 하나님의 예정이 그의 섭리의 표지라는 사실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츠빙글리와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유사하면서도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칼빈과 츠빙글리의 삼단논법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칼빈의 루터의 칭의론적 사유 구조를 어떻게 예정론적 사유와 결합시키는 과정 속에서, 츠빙글리의 삼단논법을 형식적으로 수용했음을 원문중심의 연구를 통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합리성 및 이를 유발시킨 청교도적인 세계내적 금욕주의의 신학적 근거라고 간주되었던 소위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이 츠빙글리의 삼단논법의 형식을 수용한 예정론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논증한 후, 이와 관련하여 왜곡된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이 아니라 이의 원형을 발견,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혁신학의 역사와 신학에 있어서 츠빙글리의 신학 없이 칼빈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츠빙글리와 칼빈 신학의 내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작

1) Gute Werke, die man tut, seien .ein gewiss Zeichen des Glaubens. [...] Darum erkennt der Mensch aus seinen Fr.chten, was er für ein Baum ist, und an der Liebe und den Werken wird er gewiss, dass Christus in ihm ist. [...] Wenn ihr euch frisch .bt in guten Werken, so werdet ihr gewiss und knnt nicht zweifeln, dass euch Gott berufen und erwählt hat.(인간이 행하는 선행은 신앙의 표지이다....인간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 사랑과 선행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너희가 선행을 베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였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WA (루터전집) 10/1 44₂₁ (Münchener Ausgabe, Ergänzungsband 4, 35).

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저명한 독일의 칼빈신학 연구가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이 주장한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삼단논법의 논리적 사유구조가 존재하지 않는가²⁾ 혹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사유구조가 루터가 이해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예정론적, 섭리론적 지평 속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신학적 장치였으며, 이는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강조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때, 츠빙글리와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선행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고 있을 뿐, 선행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³⁾ 이에 근거하여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을 강조하며, 칼빈주의적 윤리가 경제적 성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던 막스 베버의 종교 사회학적 통찰⁴⁾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테제를 논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영향사적 근거로서의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구조와 내용,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를 통한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현실화 및 이의 청교도적 수용. 칼빈이 실천적 삼단논법을 구사하는가에 관한 질문 너머, 루터와 츠빙글리와의 비교를 통한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원형의 재발견. 이를 통하여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연구대상이었던 17세기 이후 칼빈주의자

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2. Aufl.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172-182.

3) Matthias Zeindler, *Erwählung: Gottes Weg in der Welt* (Zürich: Theol. Verl. 2009), 58.

4)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6)," in *Die protestantische Ethik* Bd. 1, hg. v. Johannes Winckelmann (Hamburg: Siebenstern-Taschenbuch-Verlag, 1973), 27-278. 에른스트 트뢰치 또한 막스 베버와 동일하게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E. Troeltsch,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Ges. Schriften, Bd. 1(Tübingen: 1912, 706, 709; 1995, 74-101).

(청교도)들의 신앙적 관습, 즉 선행의 실천, 더 나아가 경제적 성공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신학적 논리구조는 결코 칼빈이 제시했던 본래적 의미의 실천적 삼단논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루터가 이해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츠빙글리와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내용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실천적 삼단논법의 형식과 관련하여 츠빙글리와 칼빈의 유사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Syllogismus practicus*)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선택, 신앙과 선행의 논리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그에 의하면, 신앙은 마치 열매를 맺은 나무처럼 그의 행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영적 존재(*qui enim dei voluntatem faciunt, iam factis tanquam fructibus ostendunt se deo plenos esse*)⁵⁾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를 통하여 신앙인의 행위가 신앙의 증거이며,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라는 논리로 귀결된다.⁶⁾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사랑한다.⁷⁾

5)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Z(츠빙글리전집) VI/III, 186.

6) Z VI/III, 186.

7) *Nam faciendo non reddimur fratres Christi, sed per electionem illum cognoscendo et amplectendo*. Z VI/III, 186.

그에 의하면, 섭리는 예정의 아버지(*est autem providentia praedestinationis veluti parens*)⁸⁾로서, 예정은 섭리로부터 출생된다(*nascitur autem praedestinatio [...] ex providentia*).⁹⁾ 또한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확신의 증거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fides dei donum sit*)이다.¹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의 표지로서의 신앙(*fides electionis signum est*)¹¹⁾은 성령의 내적 설교, 즉 하나님의 내면적 동기 부여¹²⁾로서, 이의 가시적 표시는 율법의 실천 즉 선행으로서 간주된다.¹³⁾ 여기서 신앙은 행위, 신앙, 은총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간의 관계를 규정, 증재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며, 이는 삼단논법의 형태로 전개된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간을 세계창조 이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이 선사되며, 이 신앙은 선행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선행은 신적인 근원으로 소급되면서, 율법 또한 신적인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신적인 율법은 선택의 표지로서의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선행, 즉 율법의 실천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 의지가 계시된 것으로서,¹⁴⁾ 하나

8) *De vera et falsa religione commentarius*, Z III, 843

9) Z III, 843

10)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Z VI/III, 177.

11) Z VI/III, 181.

12) *eodem modo viciniore et nobis notiori causae tribuit, quod solius est spiritus, non externae praedicationis, quemadmodum sacramentarii fere contendunt.*(바울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직 성령전주의자들이 선포하는 외적 설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Z VI/III, 186; *Est enim et apostoli opus a dei manu, sed medium. Ipse vero tractus internus immediate operantis est spiritus.*(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수행되는 사도의 사역은 간접적이지만, 성령의 효력은 직접적인 내면적 압박이다.) Z VI/III, 187.

13) *fides autem electionem sic sequatur, ut qui illam habeant, sciant se veluti per sigillum ac pignus electos esse, Sic, qui fidei opera faciunt*(인간은 하나님의 선택 이후 신앙을 소유한다. 자신이 선택 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선행-신앙에 근거한 선행-을 행한다.) Z VI/III, 184.

14) *Que igitur sine lege, hoc est sine verbo et voluntate dei fiunt, non sunt ex fide. Que «non*

님의 율법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의지 및 신앙과 무관하게 된다(Ea opera, que sine voluntate dei facta sunt, etiam sine fide sint facta).¹⁵⁾ 더 나아가 예정은 섭리로 소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행은 섭리론적 지평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그의 율법의 실천으로서의 선행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지평에서 섭리론 및 예정론적 전망 속에서 전개되는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적 윤리학의 시초로서,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노이저(Wilhelm Neuser)에 의하면, 츠빙글리는 칼빈처럼 성화(Heiligung)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을 통하여 성화개념과 유사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⁶⁾ 왜냐하면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 및 예정에 근거하여 신적인 율법의 실천, 즉 선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그의 명령에 근거하여 삶을 영위한다. 또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 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율법이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은 그리스도 신앙에 근거한 율법의 구체적 실천을

sunt ex fide, peccatum sunt».(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율법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없다. 신앙없는 선행은 죄이다.) *Fidei expositio*, Z VI/V, 120.

15) Z VI/V, 120.

16) Wilhelm Neuser, “Dogma und Bekenntnis in der Reformation. Von Zwingli und Calvin bis zur Synode von Westminster. Abschnitt. I. Zwingli und Zwinglianismus,” *HDThG²*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98/1999), 190.

17) Qui enim dei cognitionem habent, sciunt vitam esse componendam ad nutum dei, qui vero fidem, sciunt se esse electos. Electi autem, qui hoc sciunt, non possunt non videre, quod, quaecunque lex vetat, ab eis abstinendum esse.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Z VI/III, 223.

통하여 강화된다. 여기서 츠빙글리가 율법의 실천, 즉 선행을 강조하는가에 관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의 핵심모토인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을 통한 칭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이의 완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적 확신과 인간의 도덕적 변화를 결합시키며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구상, 관철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변화가 인간의 고유한 도덕적 능력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펠라기안주의자로서 비판받지 않을 수 있었다.¹⁸⁾ 더 나아가 이 사실은 그가 스위스 인문주의자 그룹의 기독교 갱신운동(Christus renascens)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할 수 있다. 리히(Arthur Rich)에 따르면, 그가 참여했던 스위스 기독교 갱신운동(Christus renascens)은 청년 츠빙글리 신학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단서로서, 이는 성서의 복음을 교육학적 의미로 변용시켜 이해했던 스위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의 공동체의 도덕적 갱신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반영한다.¹⁹⁾ 그러나 그는 청년시절 추종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로서의 노예의 지 및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전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인문주의 운동이 지향했던 인간의 도덕적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 있어서, 스위스 기독교 인문주의자 그룹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인문주의적인 종교개혁적 확신에 근거한 그리스도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모범으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18) Ulrich Gäbler, *Huldrych Zwingli. Eine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Verlag C H Beck, 1983), 82.

19)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Diss. Theol. (Zürich: Zwingli Verlag, 1949), 15.

이는 개혁교회의 윤리적 신학의 전통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개혁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신학적 진술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에 기인한 예정론과 율법론의 기본적인 윤곽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그가 강조하는 율법의 신적인 근원은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성화론의 신학적 근거로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바젤(Basel)대학 종교개혁사 교수를 역임했던 츠빙글리 연구가 게블러(Ulrich Gäbler)는 율법의 신적인 근원으로서의 섭리와 예정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선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츠빙글리의 신학적 견해가 율법을 복음의 수용의 전단계로서 해석하는 루터와는 달리 그가 지향하는 율법개념의 사회공동체적 의미를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⁰⁾ 물론 그가 자신의 신학적 논리를 실천적 삼단논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삼단논법의 논리적 구조가 구체적인 신앙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적 삼단논법(Syllogismus practicus)이라고 좀 더 세심한 개념규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논리적 구성을 통하여 표현해 보고자 한다.

1. 하나님 선택은 그의 섭리의 표지(증거)이다.
2. 신앙은 하나님 선택의 표지(증거)이다.
3. 선행은 신앙의 표지(증거)이다.

이와 같이 섭리 개념으로부터 추론되는 예정으로서의 선택, 신앙과 선행에 관한 논리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이의 증거로서 신앙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으로서의 그의 선택은

20) *Ibid.*, 64.

인간의 선행과는 무관하다. 하나님께서 세계창조 이전 자유롭게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행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기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선택-신앙의 결과로서의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확신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이다. 여기서 섭리는 선택을, 선택은 신앙을, 신앙은 선행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III.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 구원론적 논리의 삼단계

칼빈 또한 츠빙글리처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된 삼단논법을 구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독교강요 III권 중 예정론에 관하여 해명한 부분이 삼단논법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전개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즉 신앙은 은총의 선택의 표지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논리적 단계, 은총의 선택의 섭리의 표지이며, 선행의 신앙의 표지라는 사실은 생각하거나 새롭게 변형시킨다. 그는 츠빙글리 실천적 삼단논법의 두 번째 단계를 그의 예정론의 핵심 테제로서 제시하며, 루터를 통하여 수용한 칭의론적 통찰을 예정론적으로 변형한다.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후자는 전자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를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²¹⁾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루터의 칭의선언은 그의 예정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표현된다.

21)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때, 우리는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며, 결과가 원인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Sed ubi eam nobis patefecit Deus, altius ascendere oportet, ne effectus causam obruat), *Inst*(1559). III, XXIII, 3 (OS-칼빈선집4-V, 413).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과 성도의 행위로 인하여 선택받았다는 생각은 상호 일치할 수 없다.²²⁾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여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 아닐 것이다.²³⁾

첫 번째 논리적 단계의 경우, 칼빈이 츠빙글리와는 달리 예정론을 신론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예정과 섭리의 관계는 기독교 강요에서 더 이상 논증되지 않는다. 반면에 세 번째 논리적 단계의 경우, 칼빈은 루터와 츠빙글리와 동일하게 선행이 신앙의 표지, 즉 칭의사건이 결과가 선행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변형시킨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동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선행은 단순히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은총으로서의 신앙처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게 되며, 동시에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²⁴⁾

22) Pugnans enim inter se haec duo, habere pios ab electione ut sancti sint, et ad eam ratione operum pervenire. *Inst.*(1559). III, XXII, 3 (OS IV, 382).

23) Certa Dei gratia non sola praedicari in electione nostra meretur, nisi haec gratuita sit. *Inst.*(1559). III, XXII, 3 (OS IV, 382).

24) possidere autem non potes quin fias sanctificationis eius particeps...utrumque simul largitur: alterum nunquam sine altero. Ita liquet quam verum sit nos non sine operibus, neque tamen per opera iustificari: quoniam in Christi participatione, qua iustificamur, non minus sanctificatio continetur quam iustitia. *Inst.*(1559). III, XIII, 19 (OS IV, 237).

정리하자면, 칼빈의 경우,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 중 두 번째의 논리적 단계를 부각시키며, 세 단계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개진한다. 츠빙글리의 세 번째 논리적 단계인 선행은 신앙의 표지라는 신학적 진술 대신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 은총을 강조하면서,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한다.²⁵⁾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신앙이지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선택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²⁶⁾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실현된다.²⁷⁾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거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사역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적인 소명은 우리를 기만할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²⁸⁾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선택의 원인, 역으로 표현하자면, 선택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라고 칼빈은 주장한다.²⁹⁾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인 선행을 통하여

25) *Denique sic Die beneficia praedicant ut tamen non deflectant a gratuito Dei favore*, Inst III, XVI, 1 (OS IV, 249).

26) *electionem...vocatione demum sua Deus manifestat; quam ideo appellare proprie licet eius testificationem.* (하나님께서서는 부르심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셨음을 선포하신다. 따라서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st(1559). III, XXIII 1 (OS IV, 410)

27) *non sola verbi praedicatione, sed et spiritus illuminatione constat.* Inst(1559). III, XXIII 2 (OS IV, 412).

28) *Atque etiam eius, gloriae suae causam spiritus sui efficaciam ab illis subducit. Interior igitur haec vocatio pignus est salutis quod fallere non potest.* Inst(1559). III, XXIII 2 (OS IV, 412).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은 선행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대전제 없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인간의 선행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일 뿐,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의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³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론적 전망 속에서 전개되는 칼빈의 선택과 부르심, 신앙과 선행에 관한 신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렴된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입양하신 사람들은 그들 존재 자체로 인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다...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울이다.³¹⁾

지금까지의 논증을 종합하여 볼 때,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원형으로서의 구원론의 삼단계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은 그의 선택의 표지이다.
2. 하나님의 선택의 표지인 신앙에 근거한 그리스도 은총으로서의 칭의와 이를 확신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총인 성화(선행)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지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에 근거한 신앙과 선행의 의미가 해명된다.

29)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서 자신들이 주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a fructibus vocationis se in filiorum locum a Domino cooptatos esse reputant.), *Inst*(1559). III, XIII 19 (OS IV, 237).

30) 그들의 행위는 오직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들의 선택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지이다.(non aliter quam Dei dona intuentur, unde eius bonitatem recognoscent, non aliter quam vocationis signa unde electionem reputent.), *Inst*(1559). III, XIII 19 (OS IV, 238).

31) Proinde quos Deus sibi filios assumpsit, non in ipsis eos dicitur elegerisse, sed in Christo suo.....Christus ergo speculum est in quo electionem nostram contemplari convenit. *Inst*(1559). III, XXIII 5 (OS IV 415-416).

IV.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과 실천적 삼단논법

칼빈은 자신의 성화론의 구체적인 표상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부정의 삶으로 표현하며, 이를 위하여 미래에 다가올 삶을 묵상하며 현실 속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청교도적 엄숙주의를 야기하는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한다.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묵상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의 표지로서의 성령의 조명을 통한 그의 내적인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룩한 삶의 표상으로서, 이는 칼빈의 종말론의 특성을 지시한다. 플라스거(G. Plasger)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 III권 9장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은 종말을 기대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종말론적 특성을 보여준다.³²⁾ 즉 다가올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현실적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적 삶의 허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비로소 시작되지만, 현실적 삶을 경멸하는 극단적인 금욕적 경향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³³⁾ 오히려 현실적 삶을 인내하기 위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이자 미래에 실현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는 삶으로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부정의 삶의 방식으로

32) Georg Plasger, “Calvins lebensbejahende Eschatologie,” Matthias Freudenberg / J. Marius J. Lange van Ravenswaay (Hg.), *Calvin und seine Wirkungen. Vorträge der 7. Emdener Tagung zur Geschichte des reformierten Protestant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09), 84-88.

33) Ergo si cum caelesti vita terrena comparetur, non dubium quin facile et contemnenda et proculcanda sit. Odio certe habenda nunquam est, nisi quatenus nos peccato tenet obnoxios. (이 땅 위에서와 하늘의 삶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경멸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 구속시키지 않는 한, 전자를 증오해서는 안 된다.) *Inst*(1559). III IX 4 (OS IV 174).

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현실적 삶을 종말론적 전망 속에서 새롭게 긍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위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실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일부로서 간주해야 하며……이 는 신앙인의 구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³⁴⁾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여기서 자신의 죽음과 종말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진보하지 않는 퇴행적인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정의한다.³⁵⁾ 스스로 자신의 종말론적 완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퇴행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일한 삶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완성을 지향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현실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종말론적 희망의 현재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칼빈에 의하면, 현실적 삶의 성화로 귀결되는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종말론적 삶의 방식을 준수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가난한 생활을 인내하게 한다.³⁶⁾ 따라서 천상의 삶을 향하여 이 땅 위에서 순례자의 삶을

34) *Siquidem haec vita……Dei benedictiones……Praesertim vero fidelibus testimonium esse debet divinae benevolentiae: quando ad salutem eorum promovendam tota est destinata, Inst(1559). III, IX 3 (OS IV 173).*

35) *Hoc tamen habeamus constitutum, nemenem bene in Christi schola profecisse, nisi qui et mortis et ultimae resurrectionis diem cum gaudio expectet (그리스도의 확고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하지 않는 사람이다), Inst(1559). III, IX 5 (OS IV 175).*

36) *Sed nulla certior aut expeditior via est quam quae nobis fit a praesentis vitae contemptu et caelestis immortalitatis meditatione……Deinde ut non minus placide ac patienter penuriam, quam moderate abundantiam ferre noverint (가장 확실한 길은 현재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불멸한 삶을 명상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빈곤을 조용하게 견디며, 부유함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와 방종의 삶의 방식을 극복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재화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며, 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³⁷⁾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재화를 선사하신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또한 단순한 이용가치를 초월하여 아름다움 그 자체를 창조하셨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에는 그것들을 다른 금속이나 돌보다 더 귀중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주시지 않았는가? 주님께서는 필요한 이용가치를 초월하여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창조하시지 않았는가?³⁸⁾

이에 근거하여 루터의 직업소명설을 다시금 새롭게 정의한다. 성화의 삶을 지향하는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한 묵상은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하여 근면검소한 삶의 방식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즉 직업생활로서 표현되고 있다.³⁹⁾ 더 나아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미

절제해야 한다.) *Inst*(1559). III X 4 (OS IV 179).

- 37) *Omnes illas eic esse datas nobis Dei benignitate et in commodum nostrum destinatas, ut sint velut deposita quorum reddenda sit olim ratio.*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것을, 우리는 언젠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Inst* III, X 5 (OS IV 180).
- 38) *annon auro argento, ebori ac marmori gratiam attribuit, qua prae aliis aut metallis aut lapidibus pretiosa redderentur? Denique annon res multas, citra necessarium usum, commendabiles nobis reddidit?.* *Inst*(1559). III, X 2 (OS IV 178).
- 39) *Ac nequis temere suos fines transiliret, eiusmodi vivendi genera vocationes appellavit. Suum ergo singulis vivendi genus est quasi statio a Domino attributa, ne temere toto vitae cursu circumagantur.*(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방식-직업을 소명-부르심이라고 부르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각자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직업을 지정하셨다.) *Inst*(1559). III, X 6 (OS IV 180).

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⁴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신앙은 가치를 상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수령할 수 없다.⁴¹⁾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만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택과 견인의 은총에 근거하여 확신, 신뢰할 뿐이다.

정리하자면, 칼빈은 루터의 직업소명설에 근거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세계 속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을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 확신될 수 있도록, 절제된 현실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이 상호간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며, 율법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청교도운동이 이와 같이 칼빈이 주장했던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을 근면 성실한 직업생활과 결합시키면서, 그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청교도적 변형은 시작된다. 즉 구원의 원인보다 구원의 결과가 더 강조되면서, 자본주의적인 합리적 노동의 방식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던 청빈과 근면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의 증거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개신교적인 윤리적 단초는 루터의 직업소명설이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를 통하여 형성된 청교도적인 삶의 방식의 합리화 과정과 결합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는 현실 세계를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세계 내적 금욕주의의 동인이다.⁴²⁾ 이와

40) Sed enim ista sollicitudine liberavit nos Christus; nam in posterum certe respiciunt istae promissiones. *Inst*(1559). III, XXIII 6 (OS IV 417).

41) Denique ipsa experientia satis docemur, parvi esse vocationem ac fidem, nisi accedat perseverantia, quae non omnibus contingit. *Inst*(1559). III, XXIII 6 (OS IV 417).

42)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Mohr Siebeck, 1986), 163.

같은 19-20세기 전반 서구사회 개신교인의 신앙형태와 자본주의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막스 베버의 객관적-사회학적 분석은 칼빈의 삼단논법의 형태로 전개되는 구원론적 단초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성공과 부의 축적을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로서 이해하는 근·현대 칼빈주의자(청교도)들의 삶의 방식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고찰은 종교개혁 이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개념을 수도원적 이상의 실현으로서 간주했던 중세시기의 종교적 관념의 변화, 즉 수도원적 일상으로부터 일상적 삶의 세계로의 전환 속에서 형성된 부르심의 관념을 전제로 한다. 세계외적(außerweltlich)으로 표현되는 수도원적 삶의 방식과 세계내적(innerweltlich)으로 표현되는 일상적인 직업세계에서의 삶의 방식의 차이는 선행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행과 인간 스스로 시도되는 선행 사이의 대립은 종교개혁시기 시대적 여건상 일상적 직업세계와 수도원적 삶의 세계 사이의 대립을 의미상 내포할 수밖에 없다. 칼빈이 하나님의 선택의 관념으로부터 기인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며, 이를 루터의 직업소명설의 부연설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

V. 글을 정리하며: 요약과 평가

결론적으로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소위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관련된 청교도적인 세계내적 금욕주의와는 무관하다. 물론 청빈과 근면, 성실을 강조했던 근·현대 자본주의적인 합리적 생활방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과 이의 현실화로서의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meditatio futurae vitae*)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음은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의미는 하나님 선택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의 강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과 성령의 조명을 통한 내적인 부르심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전망 속에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칭의와 성화의 결합을 주장한다.

종교개혁신학의 근간을 형성한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이 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양자의 신학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시켰다는 역사적-신학적 평가를 참고하고,⁴³⁾ 본 논문이 논증한 것처럼 원문연구에 근거하여 츠빙글리와 칼빈의 삼단계 논리구조를 비교한다면, 칼빈은 루터가 이해한 칭의와 성화, 즉 신앙과 선행의 관계에 근거하여 츠빙글리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신학적 논리를 구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이 전제하고 있는 섭리론적 전망을 생략한 채, 예정론적 논리만을 수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삼단논법, 즉 그리스도론적-성령론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meditatio futurae vitae*)을 통하여 이를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견인하고 있다. 여기서 츠빙글리가 제시했던 섭리와 예정의 관계 대신에, 예정과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삽입한 것은 일종의 성령론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은총이라고 정의하며, 신앙과 선행의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상호관계를 주장한 점, 그리고 선택의 거울이 그리스도라고 명시하며, 예정론과 관

43) “칼뱅은 루터의 정(thesis)과 츠빙글리의 반(antithesis)을 조화시켜 하나의 합(synthesis)을 만들고자 하였다.” 박경수, 『교회사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79; Matthias Freudenberg, *Karl Barth und die reformierte Theologie. Die Auseinandersetzung mit Calvin, Zwingli und den reformierten Bekenntnisschriften während seiner Göttinger Lehrtätigkeit* (Neukirchener Theologische Dissertationen und Habilitationen, Bd. 8) (Neukirchen-Vluyn, 1997), 207.

련된 모든 논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렴한 그의 논리전개 또한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독특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론·성령론적 전망 속에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신학을 비판적·창조적으로 계승, 종합한 칼빈의 고유한 신학적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섭리’ 개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츠빙글리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그리스도 중심적 전망을 초월하여 하나님 중심적 전망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섭리’ 개념을 통하여 보편적인 하나님 이해에 기반한 일종의 포괄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츠빙글리와는 달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표출되는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구원론적 집중은 그의 교회중심적·목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칼빈이 섭리를 보편적 신론의 속성으로 이해했던 전통적인 관념과는 달리, 섭리를 세계를 향한 일반 섭리와 교회를 향한 특별 섭리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섭리’ 개념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론적 전망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함의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칭의 및 성화의 사건이 아니라, ‘선택·부르심·선행’의 논리적 단계로 구성된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외형적 형식만을 주목한다면, 예정론과 성화의 관계를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의 밀접한 상관성, 즉 경제적 관념과 행위의 상관성으로 명확하게 재해석한 막스 베버의 객관적 판단⁴⁵⁾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의 객관적 고찰이 칼빈의 예정론을 교의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청교도들의 종교적 관념과 경제활동 사이의 상호작용 및 윤리적 결과를 주목했다는

44) 조용석, “16세기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주의 및 현대 교파간 대화에 대한 에큐메니칼적 해석,” 『연세대학교신학논단』 62집(2010), 252.

45) 박경수,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베버 논지에 대한 재평가,” 『칼빈연구』 8집(2011), 220.

점에서 학문적 타당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선행(성화)은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자본주의적인 합리적 노동방식을 강화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칼빈의 실천적 삼단논법은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표지로서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신앙고백적 수용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기서 가시적 사건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구원사역을 증명하는 일종의 표지로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니젤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칼빈은 소위 실천적 삼단논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삼단계 구원론적 논리, 즉 예정, 칭의, 성화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도달된 결론은 어떠한 학문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⁴⁶⁾

— 주제어 —

실천적 삼단논법, 선행, 신앙, 부르심, 선택

Syllogismus practicus, gute Werke, Glaube, Berufung, Erwählung

46)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2. Aufl.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180.

참고문헌

1. 1차 문헌

Cavin, Ioannes.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OS]. 5 Bde. Hg. v. P. Barth, W. Niesel [und D.Scheuner]. München: 1926-52.

_____.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59).

Luther, Martin.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WA], Weimar 1883ff.

_____. *Wartburgpostille* (1522), WA 10/I.

Zwingli, Huldreich.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Z], hrsg. von Emil Egli, et al. Bde. 1-14. Corpus Reformatorum, 88-101. Berlin/Leipzig/Zürich, 1905-1991 .

_____. *De vera et falsa religione commentarius* (1525), Z III. S. 590-912.

_____. *Sermonis de providentia dei anamnema* (1530), Z VI/III. S. 1-230.

_____. *Fidei expositio* (1531), Z VI/V. S. 1-163.

2. 2차 문헌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_____.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_____.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베버 논지에 대한 재평가.” 『칼빈연구』 8집 (2011).

베버, 막스/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_____.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조용석. “16세기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주의 및 현대 교파간 대화에 대한 예규

메니칼적 해석.” 『연세대학교 신학논단』 62집(2010).

Althaus, Paul.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2.

Barth, Karl. *Gesamtausgabe. Im Auftrag der Karl-Barth-Stiftung*. Hrsg. von Hinrich Stoevesandt. Abt II, *Die Theologie Zwinglis. Vorlesung Göttingen Wintersemester 1922/23*. Hrsg. von Matthias Freudenber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4.

Busch, Eberhard. *Gotteserkenntnis und Menschlichkeit. Einsichten in die Theologie Johannes Calvin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5.

Freudenberg, Matthias. *Karl Barth und die reformierte Theologie. Die Auseinandersetzung mit Calvin, Zwingli und den reformierten Bekenntnisschriften während seiner Göttinger Lehrtätigkeit*. Neukirchener Theologische Dissertationen und Habilitationen, Bd. 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Gäbler, Ulrich. *Huldrych Zwingli. Eine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Verlag C H Beck, 1983.

Locher, Gottfried Wilhelm. *Huldrych Zwingli in neuer Sicht. Zehn Beiträge zur Theologie der Zürcher Reformation*. Zürich: Zwingli-Verlag, 1969.

_____. *Die Zwinglische Reformation in Rahmen der europäischen Kirchengeschichte*. Göttingen/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79.

_____. “Die Theologie Zwinglis-Bucers-Calvins.” In *Zwingli und Europa, Referate und Protokolle des Internationalen Kongresses aus Anlaß des 500. Geburtstags von Huldrych Zwingli*, hrsg. von Peter Blickle, Andreas Lindt und Alfred Schindler. 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84, 91-106.

Lohse, Bernhard. *Martin Luther. Eine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C H Beck, 1981.

Neuser, Wilhelm. “Dogma und Bekenntnis in der Reformation. Von Zwingli

- und Calvin bis zur Synode von Westminster. Abschnitt.1. Zwingli und Zwinglianismus.” *HDThG²*.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1999.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2. Aufl.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 Plasger, Georg. “Calvins lebensbejahende Eschatologie”. In *Calvin und seine Wirkungen*, hg. von Matthias Freudenberg and J. Marius J. Lange van Ravenswaay, 81-96. Vorträge der 7. Emdener Tagung zur Geschichte des reformierten Protestant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09.
- Rich, Arthur.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s.” Diss. Theol. Zürich: Zwingli Verlag, 1949.
- Scholl, Hans. *Verantwortlich und frei. Studien zu Zwingli und Calvin, zum Pfarrerbild und zur Israeltheologie der Reformation*.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6.
- Troeltsch, Ernst.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Bde. 2. Tübingen: Mohr, 1994.
-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6). In *Die protestantische Ethik*, hg. v. Johannes Winckelmann. Bd. 1. Hamburg: Siebenstern-Taschenbuch-Verlag, 1973, 27-278.
- _____.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Mohr Siebeck, 1986.
- Zeindler, Matthias. *Erwählung: Gottes Weg in der Welt*. Zürich: Theol. Verl., 2009.

Abstract

Syllogismus Practicus bei Zwingli und Calvin

Cho, Yong Seuck

(Yo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Der Syllogismus practicus, der die oft für charakteristisch für den Calvinismus gehalten wird, die Ansicht, dass die Erwählung an Wohlergehen und Wohlstand des Mensch abgelesen werden könne, bildete sich im 17. Jahrhundert heraus. Der Syllogismus practicus kommt nun ins Spiel, die Lehre nämlich, dass man aus den guten Werken, die man vollbringt, auf den eigenen Gnadenstand zurückschliessen kann. Denn diese Lehre stellt, so Weber, das entscheidende Bindeglied zwischen dem calvinistischen Berufsverständnis und der innerweltlichen Askese auf der einen und dem Kapitalismus dar. Aber diese Studie will aufzeigen, dass Calvin nirgendwo behauptet hat, dass er wirtschaftlichen Erfolg als Maßstab dafür angesehen hätte, ob ein Mensch von Gott erwät ist. Die sich anschließenden Überlegungen sollen dann detailliert die eigentliche Form von Syllogismus practicus Calvins erbringen, dass Glaube und gute Werke Zeichen der Berufung Gottes sind, die Zeichen der Erwählung Gottes ist.

Calvin nun hat sich streng an die Texte Luthers und Zwinglis angeschlossen, sowohl in der Terminologie als auch in den inhaltlichen Zusammenhängen.

1) Nach Luther sind die guten Werke Zeichen sind für den eigenen Glauben

an Christus. Sie machen dem Gläubigen seine Erwählung gewiss. 2) Nach Zwingli führt Gottes Vorsehung zur Erwählung, die Erwählung zum Glauben und der Glaube zu guten Werken. Oder in umgekehrter Reihenfolge: Die guten Werke sind das Zeichen des Glaubens, der Glaube ist das Zeichen der Erwählung und die Erwählung Zeichen der Vorsehung. Von hier aus lässt sich begründen, dass Zwinglis Syllogismus practicus auf der Ebene der Vorsehung die Praxis des Gesetzes in gesellschaftlicher Dimension begründet.

접 수 일 (2011년 9월 3일)

수 정 일 (2011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3일)